

아시아 · 중남미 플랜트 시장조사단 파견

산업자원부는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플랜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중남미, 중앙아시아 지역에 민관 공동의 플랜트, 건설, 정보 인프라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6월7일 발표했다.

조사단은 관계부처, 학회, 협회, 업계, 금융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8일부터 18일까지 멕시코, 브라질, 칠레,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등 5개국에 파견된다.

2005년 들어 5월까지 플랜트 수주실적은 55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했으나 중남미, 아시아 지역 수주실적은 6억4000만달러로 전체 수주액의 12%에 불과했다.

<화학저널 2005/06/08>